



“올 여름은 서해안에서”...대전해수욕장 개장 이틀간 20만명 몰려 7월 첫 주말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남 보령 대전해수욕장에 개장 첫날인 1일 14만여명, 2일 5만여명 등 2일간 20여만명의 피서객이 찾아 무더위를 식혔다. 대전 해수욕장을 비롯해 지난 1일 문을 연 만리포와 꽃지 등 태안 27개 해수욕장에도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충남 서해안 지자체와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피서객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련 7면) /보령시 제공

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하고 투자유치 초점

김태흠 충남도지사, 중국 방문

코로나로 멈춰선 교류 물꼬
투자통상 등 다방면서 협력 모색
충남해외사무소 재설치 추진도

중국내 2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
대백제전 등 메가이벤트 초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정상화는 물론 현지 기업 투자유치 및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9~10월 개최하는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도내 메가 이벤트 관광객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폈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청두, 상하이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중국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상하이 교류협력 확대 약속

도와 중국 상하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신에너지산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7월 3일 오후 우호 교류 15주년을 맞은 상하이시로 이동해 공정 상하이시장과 접견을 갖고,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상하이에 충남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투자통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 지역간 협력을 이어왔다”며 “오늘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양 지역간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해외사무소 재설치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 행정 중심지로서 상하이시와 협력 필요성 증대로 내년에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 지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 상하이시장도 경제·무역, 투자,

문화·관광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기업 투자유치 당진·부여에 공장

도는 이차전지 제조 후공정 설비 기업으로부터 3800만 달러를, 세계적인 스마트폴 기업으로부터 1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총 48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성과를 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항저우 항커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차오지 항커테크놀로지 회장, 박정현 부여군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항커테크놀로지는 부여 은산2 농공단지 내 4만 9769.5㎡의 부

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총방전 설비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총방전 설비는 배터리를 총방전하면서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는 장비다.

항커테크놀로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3800만 달러를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3일에는 상하이 흥교온덕무호 호텔에서 김태흠 지사와 황샤오용 엠버 스트러처 대표, 오성환 당진시장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엠버 스트러처는 당진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 내 3만 3536.2㎡ 부지에 스마트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스마트폴은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기둥에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시설이다.

한편 김 지사는 6월 29일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제19회 서부국제박람회장 개막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중국 내륙시장에 도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한·중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2면) /투자통상정책관

미래 100년 먹거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잔결음

충남도는 6월 29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4차산업 핵심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정 핵심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는 정책 수립 공론의 장으로 마련했다. 올 2월에 이어 개최한 이번 2차 워크숍에는 민관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 충남연구원, 도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2면으로 계속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명품 문화관광 충남	3면
충남해수욕장 개·폐장 일정	7면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안내	9면
문화달력	11면
충남도에 바란다	13면

'충남산업동물의료원' 내포 설립 추진

정책토론회 열고 공론화 돌입
수의·축산 교육·연구 지원 목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탄력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 진료·치료와 수의·축산 교육, 동물용 의약품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속 연구시설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은 돼지 사육 전국 1위이며, 내포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홍성은 한 육우와 돼지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구시설 설립·가동 시 수의·축산 발전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산업동물의료원 설립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7월 4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

장인 조호성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기초발제와 이규필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가 수의·축산 교육·연구·임상 지원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 1만 6596㎡에 2027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시설로는 ▲경제·산업동물병원 ▲글로벌 수의·축산 교육연구센터 ▲동물용 의약품 연구센터 등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지난 2월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이규필 위원장은 충남산업동물의료원 내포 설립 필요성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 및 재난형 동물 감염병 증가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 ▲산업동물 임상 교육 인프라 부족 ▲동물용 의약품 시장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을 들었다.

충남산업동물의료원 주요 기능은 ▲



7월 4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산업동물의료원 설립 필요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제·산업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 ▲전염성 질병 예방 연구 ▲지자체 연계 가축 전염병 역학 지원 ▲가축 질병 신속 진단 및 진료 지원 ▲중부권 경제·산업동물 수의사 교육 ▲산업동물 수의사 재·보수 연수 교육 ▲글로벌 수의 연수 지원 ▲지역 수의·축산 평생 교육 등이다.

조호성 교수는 '수의·축산 방역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내외 가축 감염병 발생 동향을 설명하고, 현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토론은 김기일 충남대 정책연구 단장이 좌장을 맡고, 안용덕 국장, 이명현 농업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장 등이 참여해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단계와도 같다"라며 "가축 사육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에 수의·축산 교육·연구·임상 지원 전문 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2019년도·홍성군과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국립학교 설치령 소재 지역 제한에 발이 묶이며 지연돼 왔다.

도는 교육부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국무총리에게 설치령 개정을 건의, 교육부가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타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3



'도·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합동공연'에서 대백제전 초청 항공권 추첨을 하고 있다.

중국 서부 중심에서 백제 문화 알렸다

도·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합동공연서 대백제전 홍보

충남도는 '2023 대백제전'에 대한 중국 현지의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한 '도·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6월 30일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에 앞서 청두시 천국원에서 열린 한-중 합동공연에는 김태흠 지사와 쓰촨성 문화체육관광 관계자 등을 비롯해 청두 시민과 교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는 민간 예술 공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합동공연에서 전통 백제 의상을 선보이고, 충남전통문화와 스토리텔링 공연을 통해 2023 대백제전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와 쓰촨성의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쓰촨성의 심장이자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인 청두에서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쁘다"며 "두 지역은 인연이 시작된 이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우며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첫 인

사를 전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2023 대백제전에 여러분들을 공식 초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우정의 토대 위에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높이 쌓아 올려 양 지역 교류협력이 한-중 지방외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통백제의상 공연, 축사, 충남전통문화 공연, 쓰촨 전통 공연, 2023 대백제전 초청 항공권 추첨, 충남·쓰촨 합동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5

11월 비전 선포식서 로드맵 공개

전문가 워크숍 열고 의견 수렴
충남·경기 추진사업 지속 협의

»1면에서 계속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단장이 지난 6월 20일 개최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도와 경기도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연구원과의 공동 비전 및 전략 마련에 앞서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고 핵심 사업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민간 추진단원 10명을 추가 위촉해 추진단 규모를 총 40명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민간 추진단에 합류한 단원들은 산업·경제, 국토·해양, 대외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 추진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기도와 지속 협의·조율해 오는 8월 2차 중간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중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동 비전 기본 구상과 부문별 발전 전략 및 개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자문위원회, 민관합동추진단과 꾸준히 소통·협력할 것"이라며 "충남과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만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계획은 충남의 희망과 꿈을 담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안하는 계획"임을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와의 상생협력 기반 위에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는 전략과 비전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충남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개발전략과 041-635-4731



'품격있는 충남'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조성

충남도 실국장 정례 브리핑

미술관·스포츠센터·파크골프장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속도

대백제전·위케이션으로
"관광매력지역으로 재도약"

충남도가 '명품 문화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미술관 등 품격 있는 도립 문화향유 기반 조성속도를 낸다.

도는 충남을 대표하는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대백제전 성공 개최, 충남형 위케이션 정착 등을 통해 전국민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6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2년차 도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전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최신 관광트렌드를 접목한 위케이션 충남 구축과 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관광매력지역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착착'

앞으로 충남을 대표할 문화체육시설 중 충남미술관은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도는 개관 이전까지 충남 미술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수작품 100점 이상 확보를 위해 충남미술관의 방향성(예술, 자연, 기술)에 부합하는 작품 수집 계획 수립 및 11월까지 작품 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착공 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를 당초 495억원에서 545억원으로 증액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원하면 내포신도시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남체육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도립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충남 이전과 함께, 파크골프장 및 교육센터를 청양군 옛 구봉광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준공 후 전국대회를 비롯해 연 10회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국제대회 유치로 통해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 전국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은 2008년 도와 롯데부여리조트(주)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협약체결에 따라 콘도, 대중골프장, 아울렛 완공 이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여파로 투자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들어 ㈜호텔롯데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 1200억원 규모의 잔여 민자사업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도입시설은 25만 1239㎡(7만 6000여 평) 규모의 루지, 미디어아트 갤러리, 한옥호텔(빌리지), 클럽핑장이다.

지난 4월 잔여 민자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2026년 도입시설 개장을 목표로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반영한 백제문화단지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단지 조성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차질없는 민자사업 추진으로 백제문화단지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대백제전 지역 넘어 세계화 목표

2023 대백제전은 2010년 이후 13년만에 개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역사문화축제로,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해외관광객 2만명 이상 유치를 목표



충남미술관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번지 일원 (문화시설지구 80,176㎡내 건립)
- ▲사업기간 - 2020. ~ 2025. ※ 2025. 12. 개관목표
- ▲규모 - 연면적 28,230㎡(8,554평) 지하2층·지상4층
- ▲총사업비 - 933억원

충남도립파크골프장

- ▲위치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52-1번지 일원(舊 구봉광산)
- ▲사업기간 - 2020. ~ 2025.
- ▲규모 - 사업면적 146,125㎡, 파크골프장 108홀, 교육센터 및 관리동 등
- ▲사업비 - 150억원



충남스포츠센터

- ▲위치 - 예산군 삼교읍 목리1967외 1필지 (내포 열병합발전소 옆)
- ▲사업기간 - 2017. 7. ~ 2024. 6.
- ▲사업내용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규모 - 부지 20,614.7㎡(6,236평), 연면적 13,344.07㎡(4,043평)
- ▲총사업비 - 545억원



로 백제 해외교류국인 일본, 중국, 동남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실리적인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 9개국 단체장을 초청하고 10개 공연단의 초청공연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5월 구마모토, 오사카, 시즈오카, 도쿄 등 일본 주요도시 순방 시 대백제전 집중 홍보 노력과 성과를 통해 올해 대백제전은 코로나19 및 국제정세에 따라 중단됐던 한·일간 문화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관광객 '150만명' 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첨단기술과 엠지(MZ)세대 맞춤형 등 이전 백제문화제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선호 관광특성을 반영한 마케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지속가능한 백제문화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안전관리대책 등의 면밀한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위케이션 호응에 연장 운영

도는 휴양지에서 일하는 '위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등 4개 시군에서 상반기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난 3월 협약을 맺은 호반건설, 현대글로벌비스와 스텔란티스, 연구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태안군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상반기 참가자의견 등을 반영해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협약기업인 야놀자 등과 기업 맞춤형 특별상품(6박7일)도 선보인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충남형 위케이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통해 양질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도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여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남만의 특색있는 문화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정책과 041-635-3811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에 그치지 않고 미래 경제를 선도합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란?

탄소중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에너지, 경제산업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

- 新 성장동력
- 미래먹거리
- 새로운 일자리



태안기업도시-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연결도로 완공

부남호 횡단 이동시간 단축

충남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크게 가까워졌다.

부남호 횡단 도로를 완공하며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을 3분으로 단축, 기업도시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간 연계성을 높이며 충남 서부권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건설본부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신설 교량 안전 점검을 끝으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는 태안읍 송암리부터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까지 610m를 연결

하는 4차로다.

도로 개통에 따라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도로 단절 구간 간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3분으로 크게 줄게 된다.

운행 거리도 26km에서 800m로 줄어 양 지역 간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은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기업도시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여 주며 시너지 효과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는 현대도시개발이 태안군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546만㎡에 1조 2201억 원을 투입해 조성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은 골프장, 콘도 등 복합휴양시설, 테마파크,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첨단복합단지, 무인 조종교육·연구단지, 국제비즈니스단지 등이다.

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서산시가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원 625만㎡의 부지에 귀농귀촌타운 등 교육연구시설, 관광·의료·체육·노인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설본부 041-635-7572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순찰차에 자치경찰문구 부착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는 충남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순찰차 244대에 '도민의 생활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충청남도 자치경찰' 문구를 부착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순찰차 홍보문구 부착을 통해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이 도민과 함께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22

중기정책 10명 중 8명 '만족'

충남도, 자원정책 설문 결과

충남도민 10명 중 8명은 경제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지원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월 27일 충남개발공사 대회 의실에서 제1차 경제상황관리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1089명) 중 701명(64.4%)이 시행 중인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701명 중 571명(81.5%)이 지원정

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1명 중 492명(86.2%)은 지원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만족도는 자금지원(87.2%), 수출지원(87.0%), 경영·시설지원(81.3%), 판로지원(76.5%), 고용지원(75.5%) 순이다.

방만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고금리, 수출감소,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지원정책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도와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도정게시판



2023 대백제전 현장 홍보 구슬담

'2023 대백제전'을 알리기 위해 (재)백제문화재단 직원들이 현장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6월 23일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현장을 찾아 대백제전 리플릿,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관광객들에게 대백제전 알리기에 힘썼다.

앞으로도 부여 서동연꽃축제 등 전국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관광객들에게 대백제전을 소개하고 알릴 계획이다.

한편 '2023 대백제전'은 무령왕 서거 1500주기, 성왕 즉위 1500주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맞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백제문화재단 041-635-6985

가치기유 충남119 지원대상 선정

충남소방본부는 '가치기유 충남119 보급사업' 2023년 2분기 지원 대상으로 18가구를 선정해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종 심의를 거쳐 총 5800만

원을 지원한다.

'가치기유 충남119' 보급사업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119원 씩 모아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한편 '가치기유 충남119'는 2021년 2월부터 5억 8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이번 18가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3가구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90

대전~외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

충남도는 대전항-호도-녹도-외연도 항로가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사업 채산성으로 민간 선사가 여객선 운영을 기피하며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토록 한 뒤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보조항로 운항 용역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신한해운이 맡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대전항을 출발해 호도와 녹도를 거쳐 외연도까지 47.2km를 오간다.

도는 이번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과 방문객 등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고, 각 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령 지역 3개 섬을 비롯, 충남 서해 섬 주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운항만과 041-635-4826

카페&디저트 창업 경연대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진시와 6월 28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디저트 창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들은 '진달래타르트', '아미산라떼', '파리고추 스콘', '모과레몬커스터드크림타르트', '연잎아이스크림', '해나루 사과&감자치즈케이크', '쌀약과샌드'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당진의 농·특산물 활용 메뉴들을 선보였다.

경연대회 수상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0일 발표 예정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358-7855



충성의료원 해바라기센터 설치

충남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운영' 공모에 충성의료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시설로, 도와 여성가족부, 도경찰청, 충성의료원이 협업해 추진한다.

해바라기센터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안정실·진술 녹화실·진료실 등을 조성한다.

충성의료원은 원내 해바라기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12월 말 개소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범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로 피해자 지

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3

치어 포획 세목망 특별단속

충남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세목망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세목망 사용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받은 구역 이탈 등이다.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 포획을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지만, 허용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 및 미성어까지 씌어씌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단속 구역은 선망, 안강망 어업의 주 조업 구역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수산자원과 041-635-7464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내선 041-635-2035



미래 스마트 국방산업 선점 속도 낸다

충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논의 “K-방산 미래 전진기지 만들 것”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이 미래 스마트 국방산업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구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 국방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4대 전략 2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6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케이(K)-방산을 위한 충남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용역 보고 ▲충남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총괄 보고 ▲세부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추진 중이다.

올해 실행계획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 조성’ 전략 중점과제로는 ▲‘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위리어플랫폼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국방 관

련 인공지능(AI)센터 유치 ▲국방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등 9건을 내놨다.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서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 조성 ▲계룡 국방 컨벤션센터 조성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드론북 테마파크 조성 ▲군납 식품 개발·가공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잡았다.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따라서는 ▲국방 관련 기관 국방산업 육성 협력 관계 구축 ▲국방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을,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전략에 따

라서는 ▲국방산학융합원 신설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논의에 앞서 가진 연구용역 보고에서는 라미경 서원대 교수가 ▲국내외 방위산업 현황과 과제 ▲방위산업과 충남 ▲충남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전담(TF)팀을 재가동하고, 주관 기관 선정과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최근 국방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군대, 육해공 통합 운영 등 미래 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충남은 국방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 등 최고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K-방산의 미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조만간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과 041-635-2233



‘상례비요’ 등 예학 고서 기증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한유진)은 6월 21일 한국예학 연구자 장동우 교수(안동대 학술연구교수) 소장 예학 고서 기증식을 열고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증된 예서는 장동우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오랫동안 수집하고 소중히 간직해온 자료들로, 김장생의 ‘상례비요’, 안신의 ‘가례부해’, 이항의 ‘퇴계상제례담문’ 등 총 176종 456책이다. 장동우 교수는 조선시대 관혼상제 등 가례 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학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041-981-9947

충남안전체험관장에 박창우 소방장

“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운영”

충남소방본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승격한 충청남도안전체험관 관장에 박창우(사진) 119종합상황실장(소방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관장은 1997년 소방간부후보생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서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소속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관장은 “충남안전체험관은 도민 안전 의식과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체험 교육 공간”이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에게 제공, 더 신뢰받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마을, 사회·자연재난 체험, 응급처치 및 소방시설실습관 등을 운영 중이다. /충남소방본부 041-559-973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출범

대회시설, 협력사업 등 준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는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 12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감사 2명을 포함하여 정치, 체육, 경제, 언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164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은 이창섭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7월 중 사무처를 발족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과 직제와 인력 등에 대한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회에서 충청권 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하여 대회시설 및 인프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협력사업, 홍보 및 마케팅, 자원봉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대전·충청권에서 개최, 150개국에서 1만 50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대회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9

6월 우수직원에 박주영 주무관

무공해차 전환 공모 선정 공모

충남도는 ‘6월 중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대기환경과 박주영(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내에는 백제문화단지,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13개 시군 67개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



기 95기가 추가 설치된다.

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과 문화·관광시설 등 충전 취약지역 감소,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매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 심사 후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041-635-2132



1300년 기다림의 아름다움, 백제금동대향로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18)백제금동대향로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이입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등장해서,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충나미와 함께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랍니다. 충나미는 무령왕비의 관 꾸미개를, 저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바탕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모티브가 되는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써 백제금동대향로가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되었어요. 백제금동대향로는 저기 보이시는 나성과 부여왕릉원(능산리고분군) 사이의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되었답니다. 발굴 당시

능산리 절터는 거의 물웅덩이였다고 해요. 그곳에서 한국 발굴사에 길이 남을 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되었죠. 이 유물은 출토된 타원형 구덩이는 원래 공방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던 목제 수조가 놓여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백제금동대향로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아! 아직 못 보셨다고요?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금동대향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한 자연 세계가 금동대향로에 표현되어 있답니다.

그 세계엔 74곳의 산과 봉우리, 6그루의 나무와 12곳의 바위, 산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을 비롯해 잔잔한 물결이 있는 물가의 풍경과 호랑이·사슴·코끼리·원숭이 등 39마리의 현실 동물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지닌 16명의 사람이 그 속에 있답니다.

그 세계를 용이 마치 대자연 세계를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산 정상부에는 5명의 백제 악사가 각각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답니다. 뚜껑 꼭지에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충청이는 신비스러운 봉황을 보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이 금으로 만든 봉황은 1300년 전, 능산리 절터에 묻히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

간혀 있었어요. 그러나 1993년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되면서 드디어 날개를 펴고 시간을 날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밖으로 나온 봉황의 모습은 날개를 높이 들고 꼬지기를 휘날리며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저에게는 백제금동대향로 그 자체도 1300년 시간을 날아온 한 송이의 연꽃처럼 보여요. 백제금동대향로는 1300년 동안 진흙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오랜 기다림을 견디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제금동대향로를 품었던 능산리 절터에 대해 알아보죠.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백제금동대향로

천안 광덕면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 타요”

전국 첫 ‘농촌택시’ 도입
격일제로 4대 시범 운행

충남 천안시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택시를 도입해 농촌교통문화 선진화에 나선다.

6월 29일 박상돈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농촌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광덕면 농촌택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남구 광덕면에서 운행 중인 기존 5개 지선노선의 마중버스를 대신해 1일 2대 격일로 4대의 농촌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한다.

641번 석지골 노선, 642번 광덕4리 마을회관 노선, 660번 행정1리 노선, 661번 추모공원 노선, 662번 무학리 종점 노선 등 5개 노선을 운행 중인 마중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손님이 없어도 운행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촌택시는 필요 시 호출에 의해 기존 버스노선을 운행하므로 운행 시간이 줄어들어 운영비를 절감하고 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행구역은 광덕면 일원 기존 지선노선에서 간선노선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앱 택시 호출 서비스는 추가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다.

또 기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추가 혜택도 그대로 제공하고 이용 수수료가 없어 시민과 택시 사업자 모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6월 23일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택시 요금 결제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결제는 물론 직접결제 기능도 한달간 앞당겨 시행했다.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누적 앱 결제 콜 수는 총 3만 4649건으로 지난 2020년 행복콜 앱 서비스 도입 후 7개월간의 콜 수 3만 5701건과 대동소이하며 빠르게 정착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백종원 매직 또 통할까’...삼교 곱창특화거리 개장

사과나무 훈연으로 냄새 잡아
돼지곱창구이 친숙하게 ‘변신’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이어 6월 30일 ‘삼교시장 곱창특화거리(삼교읍 두리2길 56-1)’에 6개 점포가 오픈했다.

군에 따르면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삼교시장 곱창특화거리에서는 예산의 8미 중 하나인 ‘삼교 곱창구이’의 신메뉴 개발을 더본코리아에 의뢰해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칩을 활용한 훈연 모듈구이를 선보인다.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돼지 특유의 냄새를 잡았다.

공통메뉴 이외에도 각 점포별로 구이·전골·볶음·순두부 등 저마다의 특색있는 돼지곱창 요리를 내놓는다.

예산군은 8미 중 하나인 ‘삼교 곱창구이’가 더 친숙한 음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신메뉴 개발 및 컨설팅 용

역을 더본코리아에 의뢰해 입점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백종원 매직’을 적용한 곱창특화거리는 개장 전부터 ‘제2의 예산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군은 백종원 대표의 아이

디어를 반영해 식당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삼교 곱창 특화거리가 개장한 6월 30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곱창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 남당항 여름 핫플레이스 급부상

국내 최대 물놀이형 음악분수
네트어드벤처, 포토존 등 각광

홍성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남당항 해양공원의 음악분수가 시험가동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대하, 새조개, 등 최고의 해산물 먹거리를 뽐내며 관광지로 명성을 날렸지만, 여름철에는 비수기였던 남당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롭게 바뀐 남당항은 천수만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할 수 있는 5만5천 규모의 해양 공원이 조성됐으며, 공원 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넓은 광장과 우리나라 최대의 물놀이형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지난 6월부터 시험가동에 나서왔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보며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해안지역 최초의 네트어드벤처 시설도 7월 중순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생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트리아트 존, 편의시설 등 다양한 매력으로 채워져 여름 힐링을 즐길 수 있다.

특히 7월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책로 벤치, 포토존 등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볼거리·즐거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관광도로 조성 등 총 사업비 70억을 투입해 24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서부해안으로 탈바꿈하고, 천수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신선한 해산물 등 본래 가지고 있던 매력과 조화된다면 20~30대의 젊은 연인들이 찾아오는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배현서 씨

지구촌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총남정착기

“언니, 여기 웬일이예요?”
“오랜만에 못 뵈더니 현서를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지”

야미 마라탕 식당에서 저를 반겨주는 한 고향 동생이 있습니다.

투덜댄 걸 본 적이 없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녀, 부여군에 거주한 세 딸의 엄마 배현서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좋은지 둘이서 해피하게 커피 한 잔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서 씨는 고향인 베트남 집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0살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현서

씨는 지금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상주농장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농장주인도 그리 좋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숙박 시설과 화장실이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며 그 추울 겨울 날씨에 식수와 전기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내놓아야 보내주겠다고 해서 현서 씨는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서야 거기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 여기저기를 돌면서 새 일 자리를 알아본 다음 부여군 임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삼화/맹주씨

파프리카 재배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관리원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것저것 알려 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샌가 정이 들고 3년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지요.”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가 달라서 시댁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는 현서 씨, 그러나 다행하게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것저것 잘 도와줘서 한

국생활 적응하기가 어느 정도 나아졌다 합니다.

“현서는 지금까지 고향에 한번도 가 보지 못 했다고 들었는데,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니? 많이 그립겠다...”

“네, 고향에는 13년째 가 보지 못 했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오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꿈만 꾸고 있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스친 그녀의 한마디.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친정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할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고향에 못 가더라도 곁에 부모님이 함께 계시어서 그리움을 좀 달랠죠”

“맞아. 한번 갔다 오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지. 그래도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네”

현서 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한 느낌이 납니다.

“식당일은 힘들지 않아요?”
“돈을 많이 못 벌지만 그나마 생활

비에 보탬이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 식당 사장님도 좋은 분이세요. 나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식당일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덕분에 나의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경험을 쌓고 쌓이면서 나중에 꼭 나의 식당을 열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얼굴에 늘 웃음꽃이 핀 그녀를 보면 웬지 안 좋은 일도 걱정된 일도 모두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동생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꼭 좋은 일이 생기고, 꼭꼭 행복이 찾아 올 거니까 그날을 위해 힘을 내지”

현서 씨의 한국 결혼생활은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더 힘들 때나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뜻깊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김채린(부여군 가족센터)



태안·보령 해수욕장 개장...물만난 피서객들 '복적'

본격 무더위에 해수욕장 인파 몰려
대전해수욕장 개장 첫날 15만여명

21일 제26회 보령머드축제 개최
야간 개장부터 흠뻑쇼까지 다채

대전해수욕장을 비롯해 7월 1일 개장
한 만리포와 꽃지 등 태안 27개 해수
욕장에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
서객들이 몰렸다.

개장 첫날 대전해수욕장에는 15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려 백사장과 바다를
가득 메웠다.

전날에도 8만 3000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으며 지난해의 경우 개장 첫날

12만 2000여명이 대전해수욕장을 찾
았다.

보령시는 이날 머드광장 특설무대에
서 김동일 시장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
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그
우먼 안소미, 조승규, 녹색지대 권선
국, 지원이 등의 축하공연으로 개장 분
위기를 고조시켰다.

대전해수욕장은 8월 20일까지 51일
간 운영된다.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야간 개장을 하고 21일부터 8
월 6일까지 제26회 보령머드축제를 개
최한다.

머드축제 기간에는 월드 K-POP
페스티벌을 비롯, 뮤직&비어 페스티
벌,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등이 진행

되며, 29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는 가
수 싸이 콘서트인 '싸이 흠뻑쇼'가 열
린다.

만리포와 꽃지, 몽산포 등 태안지역
27개 해수욕장도 이날 일제히 개장해
피서객을 맞았다.

만리포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4
년 만에 야간 개장을 한다. 8월 5일부
터 13일까지 9일간 밤 10시까지 야간
버스킹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
리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8
일 개장한다. 당진 왜목마을 해수욕장
과 난지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
욕장도 8일부터 피서객을 맞는다.

/이해든 deun127@korea.kr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는 피서객들.

2023년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

지역	해수욕장명	개장일	폐장일
당진시	왜목마을, 난지섬	2023.07.08.	2023.8.20.
	대전	2023.07.01.	2023.8.20.
보령시	무창포	2023.07.08.	2023.8.20.
	춘장대	2023.07.08.	2023.8.13.
서천군	만리포	2023.07.01.	2023.8.20.
	몽산포 포함 모든 해수욕장	2023.07.01.	2023.8.15.

태안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무자격 중개행위 예방 효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태안군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7월부터 태안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명
찰을 달고 군민을 맞는다.

태안군은 이달부터 군민들이 공인
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제'
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
자의 중개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
절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공인중개
사의 자긍심과 공신력을 높이고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
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

재된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
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
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
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94명 중 90명이
이번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
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당진 도심 속 호수공원 대덕동에 들어선다

도보 접근성·홍수방지 기능 장점
수질 오염 방지·재원 확보 과제

충남 당진 도심 속 호수공원이 대덕동에
들어선다.

당진시는 28일 호수공원 대상지 선
정위원회를 열고 호수공원 위치를 대
덕동 1309번지 일대(16만9천㎡)로 결정
했다.

도시계획, 조정·산림, 교통, 수자원,
환경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위
원회는 우두동 337번지 일대(13만9천
㎡), 대덕동, 수청동 418번지(16만7천
㎡) 등 3개 후보지를 평가한 뒤 대덕
동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덕동은 당진천을 통한 높은 도보
접근성, 홍수 재해방지 기능, 녹지 축
연계성, 용이한 수원 확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시는 대덕동 일원 부동산 투기를 방
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
기로 했다.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
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비는 1천억원 규
모로 추정된다. /당진시 제공

서산·금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서산시와 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에 추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및 섬 지역 드
론 배송 실증(서산) ▲산림특화형 드론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금산)이다.
서산은 총 3개 구역이 지정됐다. 부
남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하게 되며 가로림만에서 배송과 안전
관련, 삼각포항에서 산단 및 안전 관련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금산은 제원면
일원과 부리면 일원으로 2개 구역이
지정됐다. 산림 모목 운반 및 산림 식
생지수 파악, 산불 감시, 정찰 등을 수
행한다. 도는 이번 추가 선정으로 드론
산업의 실용화·사업화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7

지역계시판

청양군, 무료 야외영화 2편 상영 계룡 무더위 식혀줄 박터널 조성 공주 백제문화유산주간 운영

청양군이 7월 무더위를 해소하고 여름
밤을 즐기는 야외영화 2편을 무료 상
영한다.

무료 야외 상영은 2023 충남도 문
화사업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운영'에 선정된 결과로 '청양시네마'
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청양군이 후원
한다.

영화 상영과 함께 실내극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
트도 제공된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방
석과 의자를 비치하고 첫째 날에는 영
화 상영 팝페라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 팝콘, 모기 기피제, 야광 팔찌가 무
료 제공된다.

상영 일정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영화로 제작한 '한산-용의 출
현'이 6일 백세공원, 14일 남양면 행복
나눔터, 15일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상영되고 ▲어린이 가족영화 '슈퍼마
리오 브라더스'는 7일 백세공원에서
상영된다.

상영 시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청
양문예회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야외에서
영화와 공연을 즐기며 무더위를 이기
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아름다운 추
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계룡시가 무더위를 식혀줄 박터널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나
섰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박터널은 조롱박, 이색
칼라베, 베레모호박, 심슨이 등 관상용
박 13종이 터널을 이뤄 시민들에게 다
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으로 예상된다.

7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개인은 자율관람, 단체는 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
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센터는 박터널이 단순한 휴식시설에
서 벗어나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10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등 370여 명
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병아리 이끼
인형 만들기과 옥상정원 체험을 진행
하는 등 박터널이 또 다른 도시농업
체험 교육의 장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시농업
박터널 체험을 통해 가족·친구와 함께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
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시 제공

공주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
일간 백제왕도 공주와 부여, 익산 등 3
개 시군에서 '2023 백제문화유산주간'
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
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
념해 백제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
치를 다양한 체험과 전시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2018년
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백제문화유산
녹턴(유적·유물 연계프로그램)', '큐레
이터에게 듣는 백제 이야기', '백제문
화유산 만들기 체험', '백제역사유적지
구 방문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진 공모'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이 백제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주시에서는 '백제 왕실 창고에 숨
겨진 보물을 찾아라'와 한여름 밤에
공주의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방문해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음악
회를 즐길 수 있는 '백제문화유산녹
턴' 행사가 열린다. 또한, '큐레이터에
게 듣는 특별한 전시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시 제공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글자모종

김동엽(83세)

봄에 밭에 창개를 심고
날이 가물어 물주러 다니고 있다.
가무니가 모종이 죽어서
다시 모를 옮겨 심고 있다.
지금은 많이 살아서 예쁘다.

문해공부로 인생의 봄을
살고 있는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글자모종을
하나들씩 심고 있다.
글자모종도 날아가니
학교 와서 찾고 있다.

장항공공도서관 김동엽 학습자 작품 '글자모종' 김동엽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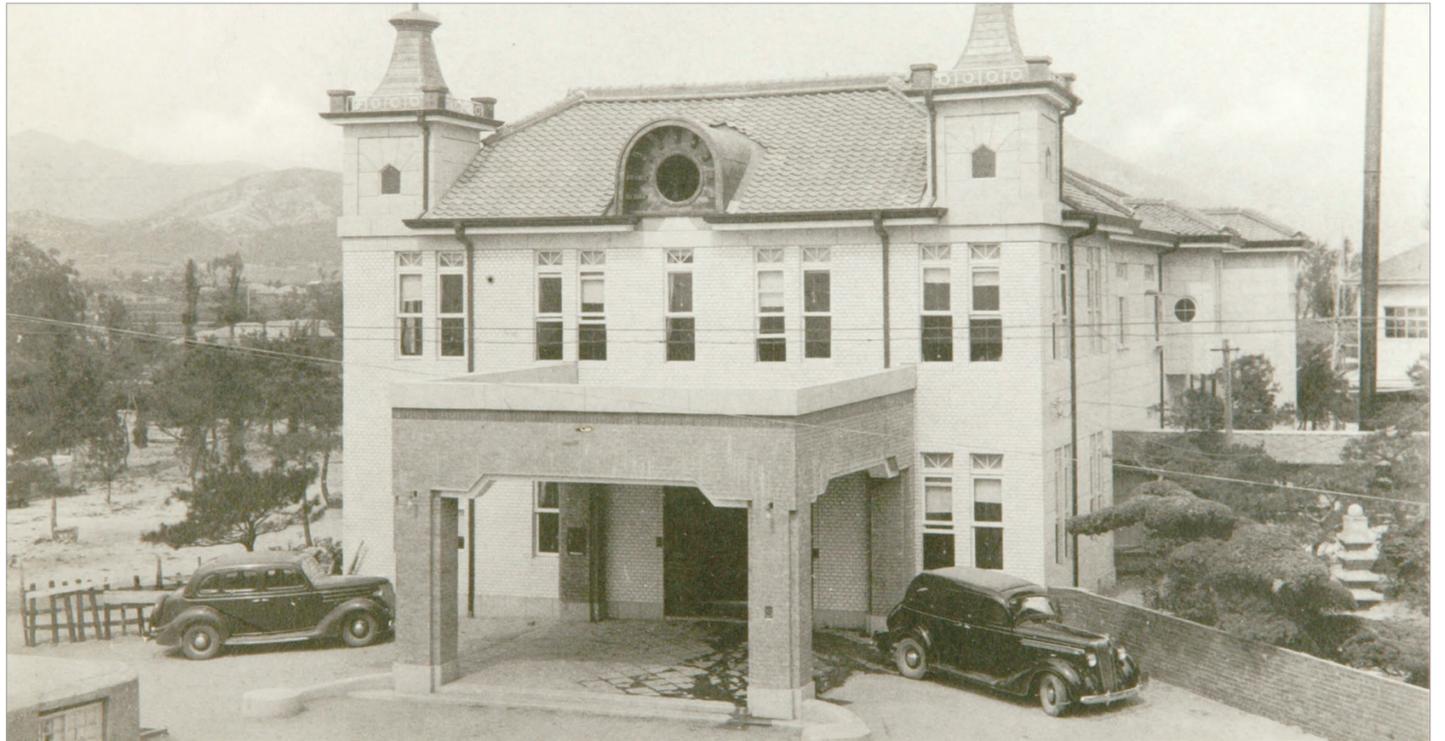
교도소 심부름꾼에서 대전 땅 절반 소유 땅부자로

격동의 충남 100년

충청 최고 갑부 김갑순



김갑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대전 유성온천 호텔 전경. 대전 유성온천 사진엽서이다. 유성온천호텔은 김갑순이 유성 최초의 온천공을 발굴하면서 1917년 유성온천호텔의 전신인 승리관으로 시작된 곳이다. 유성온천 호텔은 1917년 당시 3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

교도소 심부름하다 동헌 일자리 구해
관찰사 찾은 선비...훗날 호조판서
인연 덕분 벼슬얻어 24세 공주군수

부동산으로 눈 돌리고 땅 사들여
대전의 땅 50% 1000만 평 소유

‘격동의 충남 100년’에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공주 출신 김갑순(金甲淳)도 그 중의 한 사람. 친일파의 거물, 충청도 최고 갑부, 부동산 재테크의 1인자, 그리고 역세게 운이 좋은 사람...등등, 그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김갑순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해 오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갑순은 1872년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공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3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는 소년 가장이 되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취업을 한 곳이 공주 관찰사 산하에 있는 전옥(典獄)의 사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주 교도소에서 간수도 아닌 심부름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일은 하지만 매일 죄수들 속에 생활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남매를 맺고 있는 여인이 관찰사의 애첩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 김갑순은 그 여인을 친누나처럼 따랐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관찰사의 애첩에게 관찰사가 집무하는 동헌에 일자리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김갑순의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동헌 청소에서부터 관찰사의 신발 정리까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마침내 관찰사는 그에게 물품을 출납하는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 하루는 관찰사가 출타 중인데 허름한 차림의 선비가 찾아왔다. 하지만 관찰사가 부재중이라 크게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려는 선비에게 김갑순이 물었다. “관찰사가 오시면 무엇이라 여쭙까요?” 그러자 선비는 “관찰사는 오랜 친구인데 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도움을 청할까 하고 왔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 김갑순은 얼른 창고문을 열고 비단 한 필을 꺼내다 선비에게 안겼다. 선비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김갑순의 간절한 청에 비단을 받아 들고 서울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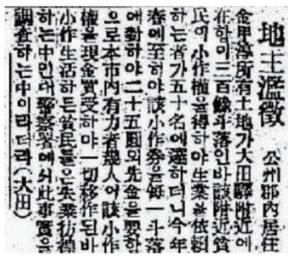
그러고서 얼마 후 그 선비가 호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지금의 재무장관이다. 호조판서가 된 그 선비는 공주의 김갑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 서울로 불러 들여 마포 세관의 검수관으로 발령을 냈다. 당시는 비행기가 없어 선박으로만 수·출입이 가능했는데 용산에 있는 마포가 센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마포의 모든 수출·수입품은 김갑순의 손에 의해 관세가 결정되었고 여기서 그는 많은 돈을 벌며 공주와 대전 등에 땅을 사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호조판서를 동원하여 고향 공주군수 운동을 하였다.

조선 말기에 조정이 극도로 부패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때라 김갑순으로서는 군수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06년 불과 24세의 김갑순은 공주군수가 되어 보란 듯이 부임한다.

전옥의 죄수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관찰사 심부름이나 하던 김갑순, 교육이라고는 받아 본 적도 없는 김갑순, 그러나 그는 양반의 도시라고 하는 공주를 다스리는 수령이 된 것이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김갑순의 벼슬 행군은 계속된다. 공주군수를 시작으로 임천군수, 부여군수, 노성군수, 김화군수(강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양군수를 역임했으니 한번 하기도 어려운 군수를 6곳이나 거쳐갔다. ‘군수 사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행정 능력이 탁월했기 때

사람처럼 불어나는 특성이 있다. 김갑순의 부동산은 그렇게 계속 늘어났고 공주 사람이면서 대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그는 언젠가 대전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 예견했던 것이다. 1930년대 대전읍 면적은 1,907,400㎡(57만 8000평)이었는데 김갑순 소유의 땅은 22만 평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전 땅 50% 가까이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김갑순의 땅을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전을 포함한 그 무렵 김갑순 소유의 땅은 3300만㎡로 1000만 평에 이르러 충청도 최고의 갑부로 올라선 것이니 엄청난 축재를 한 셈이다. 물론 그의 축재는 기적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수



김갑순 토지소유에 관한 기사(동아일보 1920년 5월 28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갑순은 조선 말기에 내장원봉세관을 거쳐 1906년에는 공주군수, 1911년 아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중요 공직을 두루 거쳤다.

이러한 공직을 바탕으로 1930년에는 약 3300만㎡(1000만평)의 대토지와 유성온천, 조선신문사, 공주읍 시장, 승합차회사 등 여러 기업을 소유한 갑부가 되었다. 김갑순은 이제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 지역으로 옮겨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식산은행에서 저리의 은행 돈을 빌려 대전역 주변의 땅을 선점하였고, 1932년 10월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대전 시가지 땅은 김갑순과 일본인 토지회사 등 미리 개발정보를 입수한 몇몇 거대 지주들에 의해 점유되었는데, 1938년 당시 대전 시가지의 토지 면적이 190만 7400㎡(57만 8000평)이었는데, 그 중 김갑순의 소유지가 72만 6000㎡(22만 평)이나 되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김갑순 선정비. /디지털산문화대전

충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촌리에 있는 근대 개항기 노성군수 김갑순의 선정비다. 노성군수 김갑순 선정비로는 갑진년에 건립한 청덕선정비와 애민청덕선정비가 있다. 노성군수 김갑순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선정을 베풀 것을 칭찬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일까? 매관매직의 산물일까? 그는 군수로 부임하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부동산이었다. 구한말과 일제식민지 초기, 그가 발견한 것은 곳곳에 ‘눈먼 땅’이 산재해있었다는 것이었다. 가령 그 시절에는 자동차나 기차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말과 마차를 이용하는 역(驛)을 두고 있었다. 예산의 신례원, 경기도의 장호원, 이태원 등이 그것인데 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에 전달하거나 벼슬아치의 지방 행차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큰 역을 맡을 30마리 이상 보유하는 역도 있었다. 그러나 역 제도가 없어지면서 역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소유권이 애매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구식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체제가 되면서 이와 같은 눈먼 땅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김갑순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굴리면 굴릴수록 눈

완이 이루어 낸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만평의 땅을 소유하다니... 이와 같은 기록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기록이 아닐까? 지금도 대전지방법원이나 공주법원에서 토지관계 소송이 제기되면 당초 소유주로 김갑순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이 땅에 남긴 발자국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무한정 축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농지개혁에 의해 많은 땅을 잃었으며 그리고 1953년의 화폐개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무료 사이버교육 수강하세요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도민의 지식 함양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2023년 도민 사이버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도민 사이버교육은 11개 분야 600여 개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세부 분야는 △도정 핵심 △리더십 △자기 혁신 △경영기법 △정보화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관리 △외국어 △제2 외국어 △취미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도민의 수요가 높은 자격증 분야에선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학습

편의를 위해 지난해 교육 수요가 높았던 14개 과정을 대상으로 자막 기능도 추가해 시범 운영한다. 수강은 도민 사이버교육센터(chungnamdomin.hunet.c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시(PC)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길영식 도 인재개발원장은 "도민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배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의견에 귀 기울여 사이버교육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인재개발원, 자격증·외국어 등 11분야 600여 과정 운영

chungnamdomin.hunet.co.kr

<h3>도정핵심</h3> <p>적극행정 청렴 4대폭력 성매매 예방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가정폭력 예방 기업맞춤형인력양성 인식개선</p>	<h3>리더십</h3> <p>코칭 자기관리 직급별 리더십 팀워크 협상스킬 업무관리</p>	<h3>자기혁신</h3> <p>자기혁신 기획력 IT어빌리티 보고서 업무노하우 스마트워크 업무습관 육아휴직</p>	<h3>경영기법</h3> <p>경영전략 마케팅 세일즈 핀테크 통섭의 지혜 트렌드</p>
<h3>정보화역량</h3> <p>DB Security 파이썬 MySQL 스토어드 프로그램 DBMS 랜섬웨어와 악성코드</p>	<h3>자격증 취득</h3> <p>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CS Leaders 스포츠관리사2급 IT/OA 기타 경비지도사 유통관리사 한자능력검정</p>	<h3>인문교양</h3> <p>코칭 자기관리 직급별 리더십 팀워크 협상스킬 업무관리</p>	<h3>건강관리</h3> <p>심리 테라피 자존감케어 스트레스관리 정신분석 행복한 직장생활</p>
<h3>외국어</h3> <p>영어 중국어</p>	<h3>제2 외국어</h3> <p>말레이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스웨덴어 몽골어</p>	<h3>개인특화</h3> <p>인문학</p>	<h3>나의 강의실</h3>

핀야일론도 볼수있어요!
네이버, 다음 등의 어플 중 하나를 실행하여 QR코드를 촬영해 주세요

학습문의 1588-6559

• 평일 08:00~18:00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더위에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충청남도, 폭염대비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돌봄노동자, 택배기사등 옥외노동자
폭염대비 생수나눔 및 기후변화 위기 캠페인

6월 28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7월 5일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7월 12일 당진 석문산업단지
 7월 20일 서산 호수공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쿨링 마스크와 식염 포도당 등 안전용품 제공
 실내에어컨 이용이 어려운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에게는 양산과 아이스밴드 등 제공

기후변화와 노동자 안전, 함께 생각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캠페인 참여 문의
 충남노동권익센터 전화 1899-6867

관광 콘텐츠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면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요즘 들어 자주 소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개선 사례가 있다.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의 인천투어 홈페이지 사례다. 홈페이지 제작 초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 개선 내용들이 소소하지만 의미가 있다. 언뜻 단어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말들에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편견들이 스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지 않는 변화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인천대교의 S라인이 한 번에 담기고” 표현은 “인천대교의 S자 곡선에 한 번에 담기고”로 변경되었다. ‘S라인’이 여성의 몸매를 상화하하며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S자 곡선’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다. 장어마을의 음식을 소개하는 문구도 바뀌었다.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여성의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노화방지, 정력 증강에 좋다고 알려진”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단어를 삭제했고, ‘정력 증강’을 ‘활력 증강’으로 바뀌었다.

해당 콘텐츠 모니터링단은 피부미용은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정력 증강은 심신의 활동력 외에 남성의 성적인 능력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활력 증강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들이 관심있어 할 벽화

장면을 개선한 사례도 있다. 동화 속 왕자와 공주를 강조한 “공주드레스 대여점, 공주가 된 순봉이” 간판과 이미지는 기린, 코끼리, 사자 등 동화 속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벽화로 바뀌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이미지들은 아이들의 미래 상상을 제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은 더욱 의미가 있다.

사실 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개선 사항이 바로 실행되는 것은 어렵다. 인천관광공사처럼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인천광역시 관광 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승화 외, 2021)가 홈페이지 제작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여 시점뿐만 아니라, 해당 개선 사례는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협력해서 변화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고민했고 소박한 안들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충남에서도 정책 분야를 선정해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 도민의 참여를 통해 소소하고 의미있는 변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성별영향평가센터장

시장에 가서 과일 사기

보기에 있는 과일을 보고 문제를 푸시오.

보기

사과 한 묶음

사과 1개 600원

귤 한 묶음

귤 1개 500원

문제 1. 사과 3개와 귤 2개를 사면 총 얼마인가요?

문제 2. 사과 5개가 한 묶음이고 귤 4개가 한 묶음일 때
 사과 두 묶음과 귤 한 묶음을 사면 총 얼마인가요?

문제 3. 총 13,000원으로 과일을 산다면 각각 몇 묶음씩 구매해야 할까요?

충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난이도 - 최상 ★★★★★

증진영역

기억력, 계산력, 문제해결
 능력, 작업기억

소요시간

10분

일상생활 적용 영역

지역사회에서 계산하기, 복합적 일상생활 증진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실습생 함미현 학생이 제작하였습니다.
 #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성아 교수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문의처 : '몸뚱이' 센터 극동
 '몸뚱이' 센터 4층
 041-830-8000
 041-830-8002-1 : 접수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세우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52-8181	시급 9,620원 이상	논산	해평금속	금속가공 기계 조작용	1명	041-742-5874	시급 9,620원 이상
천안	(주)기린테크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조작용	2명	041-582-8326	월 380만원 이상	보령	(북)대천애육원	이동 생활지도원	1명	041-933-9771	월 207만원 이상
천안	(주)제일방화문	회계 사무원	2명	041-569-0057	연 2,500만원 이상	보령	예일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041-935-9910	월 279만원 이상
천안	123한의원	간호조무사	1명	041-587-1236	연 2,600만원 이상	보령	(주)금정산업	건축 현장소장	1명	041-935-9910	연 7,000만원 이상
아산	아산이피에스(주)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49-3110	시급 9,620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대륜건설	사무 보조원	1명	041-562-0279	연 2,420만원 이상
아산	(주)광성정밀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3명	041-546-5851	연 3,300만원 이상	계룡	(주)메텍스	세탁원	4명	042-841-9220	시급 9,620원 이상
아산	영화테크(주)	정보시스템 운영자	1명	041-535-5574	연 3,2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내담에프앤비	쇼핑몰택배 준비원	2명	070-7707-8233	연 2,460만원 이상
아산	동우건설(주)	건축시공 기술자	5명	041-543-9595	연 5,0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해련식품	경리 사무원	1명	042-582-2144	월 210만원 이상
당진	(주)에이치피시스템	전기용접원	4명	031-227-8855	연 2,5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자우버	인쇄,목재,가구및기타제조분야 단순종사원	2명	042-620-6244	시급 9,620원 이상
당진	(주)세진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3명	041-356-0019	시급 9,620원 이상	홍성	농산개발(주)	광원 및 채석원	1명	041-339-5597	월 271만원 이상
당진	(주)삼성팩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2명	041-362-3335	월 250만원 이상	홍성	우리재가요양센터	사회복지사	1명	041-633-6780	월 202만원 이상
당진	(주)벨에스엠	건물 경비원	1명	010-4017-1474	월 259만원 이상	예산	명배메탈	사무 보조원	2명	041-337-6822	연 2,500만원 이상
서산	(주)창조종합건축사무소	기계감리 기술자	3명	041-664-7000	연 4,000만원 이상	예산	비알엔로지스틱스	창고 관리원	1명	041-967-1330	연 2,410만원 이상
서산	엘에스기업농기계주식회사	경리 사무원	1명	041-673-8701	월 225만원 이상	태안	주식회사신흥기공	발전기 설치·정비원	1명	010-2715-5645	연 3,400만원 이상
서산	리더스MBA영어수학학원	초중고 영어강사 모집	1명	041-662-7105	월 260만원 이상	태안	일진레저주식회사	스포츠 관리자	1명	041-670-8831	연 3,500만원 이상
서산	광동제약(주)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1명	041-668-1415	시급 9,620원 이상	서천	종합전기	일반상점 판매원	1명	041-953-0665	월 250만원 이상
공주	(사)충남지체장애안협회	사회복지사	1명	041-853-4907	월 207만원 이상	서천	(주)풍농	공장 전기관리원	1명	041-955-2511	월 332만원 이상
공주	의당자연숲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041-881-0987	월 201만원 이상	부여	(주)맥서브	건물 경비원	1명	041-408-7282	연 2,500만원 이상
공주	(주)이코인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10명	041-569-3771	시급 9,620원 이상	부여	예사랑실버웰	병원 급식 조리사	1명	041-834-8341	월 201만원 이상
공주	남양화학공업주식회사	산업 안전 및 위험물 관리원	2명	041-840-4700	연 3,100만원 이상	금산	주식회사와이엘테크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751-8632	시급 9,620원 이상
논산	(주)세움스틸	금속가공 기계 조작용	1명	041-733-7655	연 4,000만원 이상	금산	(주)한국인삼내츄럴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명	041-751-2612	월 201만원 이상
논산	(주)재연에프앤비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0명	010-7923-7980	시급 9,620원 이상	청양	(주)한울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041-943-6681	연 3,000만원 이상
논산	벤처나라	전기용접원	1명	041-734-7664	월 250만원 이상	청양	(주)케이비어드히스비스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2-905-7864	월 201만원 이상

2023.7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2 2023 퍼북아트 작품 전시회

기간: 2023. 7. 1 ~ 2023. 7. 7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2층 M갤러리
시간: 10:00
관람료: 무료



민경옥·박신애 조각전

기간: 2023. 6. 1 ~ 2023. 7. 31
장소: 제1전시실
시간: 09:30
관람료: 무료
문의: 041-933-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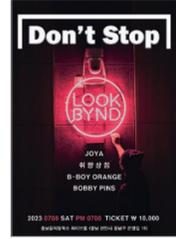
7



충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

기간: 2023. 7. 7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0:30 / 19:30
연령: 3세 이상
문의: 041-350-2911~5

8



Don't Stop LOOK BEYOND

기간: 2023. 7. 8
장소: 충남음악창작소 라이브홀
시간: 19:00
관람료: 10,000원
인원: 200명



16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10기 입주작가 쇼케이스전 <OLD & NEW>

기간: 2023.05.18 ~ 2023.07.16
시간: 10:00
장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연령: 전연령대
관람료: 무료
문의: 041-414-4464 2023



20

첼로이야기

기간: 2023. 7. 20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아트홀
시간: 19:00
관람료: 10000원
문의: 1533-8711



21



뮤지컬 파리넬리

기간: 2023. 7. 21 ~ 2023. 7. 22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관람료: P-5만원, R-3만원, S-2만원, A-1만원
문의: 041-350-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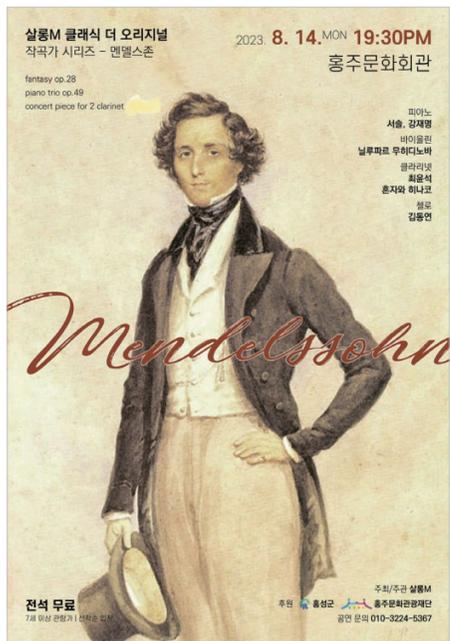
22



신진청년예술인 갤러리 - 서슬 피아니스트

▲ 피아니스트 서슬

독주자로서 박사과정에 있던 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 같이 하는 앙상블 음악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재학하며, 실내악 단체 살롱M과 트리오 뮤지이 멤버를 중심으로 여러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활동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르주 상드 아트홀을 운영하며, 지역의 클래식 음악인의 교류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연설명

실내악 단체 살롱M 소속 아티스트들 - 피아노(강재명, 서슬), 바이올린(Nilufar Mukhiddinova), 첼로(김동연), 클라리넷(혼자와 히나코, 최윤석)-이 멘델스존의 음악을 주제로 피아노 독주, 피아노 트리오, 클라리넷 작품들을 연주 한다.

▼ 예정 공연

- 7. 6. 천안예술의전당 - 피아니스트 서슬 반주 리사이틀
- 8. 13. 개화예술공원 모산미술관 - 음악이 있는 미술관
- 8. 14. 홍주문화회관 - 살롱M 클래식 디 오리지널 멘델스존
- 8. 24. 유진홀 - 서초 실내악 축제 : 트리오 뮤지이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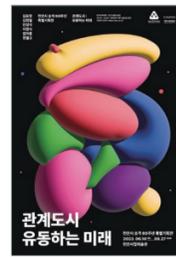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반주 전공 재학
- 살롱M 멤버, 트리오 뮤지이 멤버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수료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학/석사 졸업
- 4회의 독주 리사이틀 및 반주 리사이틀, 음악이 있는 미술관 10회, 월간 살롱M 등 다수의 연주활동

서슬



2023 성인 예술교육프로그램 -하고 싶음, 하나 <붓 잡고 싶음>

기간: 2023-06-10 ~ 2023-07-08
시간: 10:00
장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연령: 성인
관람료: 무료
문의: 041-414-4464



천안시 승격 60주년 특별기획전 <관계도시: 유동하는 미래>

기간: 2023-06-16 ~ 2023-08-27
시간: 10:00
장소: 천안시립미술관 전시실 전관
연령: 전연령
관람료: 무료



2023 충남역사박물관 정기특별전 충청의 문을 열다

기간: 2023.4.8 ~ 2023.8.31
장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야외무대 및 1층 기획전시실
시간: 14:00
문의: 041-856-8662



사서들의 서재



하얼빈/김훈/문학동네/2022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저격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죽인 까닭에 대해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총장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다. 그러므로 이 범법에 끌려 나온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

가장 치열하게 빛난 서른 한 살의 안중근

다. 나는 자객으로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화 중 하나이다. 안중근의 이야기는 뮤지컬과 영화로도 제작되어 상연 중이며,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안중근과 그 사건에 대해 담백한 문장과 서사로 이야기를 풀어낸 장편소설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 김훈은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청춘을 소설로 써 내려간 것이라고 소개 한다. 당시 안중근은 그 시대 전체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세계사적 규모의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선 조선의 서른한 살 청년이었다. 당대 최고의 대문호인 김훈 작가는 포수, 무직, 담배팔이라는 청춘의 언어인 이 세 단어를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소설의 주선물로 삼고 있다. (작가의 말)

침탈을 배경음으로 깔고,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따르되, 이야기를 강도 높게 압축해서 긴장의 스파크를 일으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아 장편소설 「하얼빈」을 2022년 10월 출간했다. 안중근 사건이 기록된 신문과 공판 기록의 원형을 통해 대부분의 이야기를 구성했으며, 작가의 의도적인 소설적 재구성은 시도하지 않고 담백한 문체와 서사로 표현하였다. 안중근의 '대의'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살아있는 몸이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대의 청춘과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독자의 해석에 대한 여지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다. 2022년 출간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의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사적 폭력과

/신배재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듣고 크다’로 무장한 새내기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천진향’ 대표 윤명훈 씨

결과물 나오지 않아 부모와 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 청년농부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는 여성농업인 희망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위례산 중턱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윤명훈(24) 씨는 농사일을 하는 가업을 이어받은 이른바 후계농이다. 대다수 농촌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 앞다투어 도시로 떠나는 것과 달리 윤씨는 부모와 상의해 일찌감치 진로를 농업으로 정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과수 분야 이론과 실기를 배운 뒤 고향에 돌아와 농사 일을 시작한 4

년차 농부이다. 본격적인 설렘으로 시작한 스무살 윤씨의 농사일은 기대만큼 만만치가 않았다. 욕심껏 벌려 놓았다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부모와 갈등도 겪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쉽지 않은 새내기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

샤인머스켓, 사과, 발작물, 화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윤씨는 농사일 할 때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꼽는다. 세대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이해로 갈등을 풀어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터득한 지혜의 하나라고 한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는 것도 윤씨가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다. 발농사 대부분이 해 뜨기 전 일찍부터 시작돼 평소 아침 잠이 많은 윤씨로선 버거운 일이지만,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다’는 말을 거울삼아 부지런함을 익히고 있다.

윤씨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족한 점을 열심히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윤씨가 집안 농사일을 거드면서 지난해 생



윤명훈씨가 포도밭에서 샤인머스켓 수확하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산량과 매출은 3년 전과 비교해 배가량 커졌다.

없던 농장 이름을 ‘절친향’으로 새로 짓고 홍보를 위해 로컬푸드 진열하는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젊은 농업인들과 4-H활동과 여성농업인 동아리 ‘다판다’에 들어가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앞론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교육을 통해 좀더 과학적인 영농에 매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과 관련한 세무 기초와 회계프로그램을 배울 예정이다.

윤씨는 포도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로 작부체계를 만들어 연중 매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과 쇼핑 라이브, 그립 입점, 수출 확대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 강화와 지역내 로컬푸드 적극 활용, 포장박스과 굿즈 제작 등도 장기 목표로 설정해 놓았다.

지속가능한 농업, 공동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토양과 농작물을 지속해 유지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업 선배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려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작물과 농업과 관련한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다.

윤씨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농부들에게 희망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 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도정신문팀



예산군보건소, 여든여덟에 시작한 ‘행복밥상’ 만들기

남자어르신 요리교실 운영 장보기부터 멸치볶음까지

온준희(88·예산읍 예산리), 강석환(88·예산읍 발연리) 어르신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군청에서 함께 일한 뒤 은퇴해 사는 것도 판박이다. “우리는 2살 늦게 호적에 올린 것도 똑같아”라고 웃는다.

예산군보건소가 6월 8일~7월 28일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남자어르신 요리교실’에서 만난 두 어르신 표정은 밝았다.

강사의 이야기를 집중해 듣고 하나하나 진지하게 따라하는 지영구(69·대술 방산리) 어르신은 “지나해도 올



해도 음식을 배워 집에 갖고 가면, 아내와 같이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올해는 ‘장보기’ 강의를 30분간 배정했다. 남성들이 요리를 배우면서도 쉽게 요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장보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요청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손주를 데리고 와 ‘스윗과파’가 된

백은관(63·예산읍 주교리) 어르신은 “평소 닭볶음탕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장보기를 같이 하니 닭부터 마늘, 파, 감자까지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다”고 새로운 경험을 전했다.

지난해 소고기미역국, 제육볶음, 자반고등어를 배웠고 올해는 닭가장, 소불고기, 파리고추 멸치볶음 등으로 운영한다.

박진아 건강증진팀장은 “위낙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그날 배운 요리를 집으로 가져가 식구들도 함께 즐기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요리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평균나이 84세 “우리도 연극배우라우”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 ‘회춘유랑단’ 두 번째 무대

당진시 정미면 끝자락에 자리한 산성리. 산성리 마을에는 특별한 연극단인 ‘회춘유랑단’이 있다. 평균연령 84세의 노령이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청춘이다. (사진)

회춘유랑단이 5월 26일과 27일 ‘우리 할머니’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산성리 마을회(대표 문한석)가 주최하고 회춘유랑단과 문화예술창작소 내상이 주관한 연극으로, 손자 동동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할머니는 손자 동동이 학교에서 그려 온 그림을 보게 된다. 할머니의 물음에 항상 그랬듯이 동동이는 귀찮은 듯이 답을 한다. 동동이의 냉랭함에 할머니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가서 동네 할머니와 수다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때 학교 숙제가 잘 안 풀리는 동동이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동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

제강점기의 혹독한 역사를 할머니가 겪어 온 것을 알게 되며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다. 이번 공연에는 김미라 씨가 동동이 할머니 역을, 동동이는 송예나 학생이 맡았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산성리 할머니가 출연해 열연을 선보였다.

연출을 맡은 문영미 문화예술창작소 내상 대표는 “할머니들로 구성된 연극단은 아마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한석 산성리 마을회 대표는 “회춘유랑단의 활동은 마을 주민의 인식 변화, 그 변화는 곧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돼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며 “황무지였던 마을회관 주변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피고 지는 행복 가득한 웃음이 넘치는, 모두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와 당진시, 당진문화재단이 후원했으며 충남형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당진시대 제공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 전국대회 전원 수상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갖고 닦은 실력 발휘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호텔조리제빵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사진)

분야별 수상자는 ▲빵공예(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창희·양현서·최진원 ▲슈가크래프트 케이크(금상) 김나금·



신영은 ▲유럽빵(금상) 현소정 ▲빵공예(금상) 신민서·박주연 ▲플레이팅 디저트(은상) 김아름·임승묵 등이다. 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는 학생들

의 실력향상을 위해 실습실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연습에 필요한 재료 등을 지원해 왔다.

양현서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모여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한 결과를 보상받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

김용찬 총장은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 학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양신문사 제공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유교 문화

내포칼럼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한 이후,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이제는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다.

과거엔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 재고 효율을 높이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창조적인 일까지 수행한다.

또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도 척척 합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 인공지능 분야의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인공지능이 세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세상과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서' 구글에서 퇴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학습법 '딥러닝'을 처음 만들었으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평생을 바쳐 온 인물이다.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를 후회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그때까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인 인간이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나쁜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악용 가능성

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 필요

윤리의식 이정표는 유교 '인의예지'에서 찾을 수 있어

과학기술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유교문화진흥원' 역할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의 이정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유교 문화'에 있다.

흔히 유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여기며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

들도 있다.

하지만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는 인간이 스스로 상식적인 삶을 살고, 또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실제로 유교 문화의 본질을 들어

이 담긴 정수가 유교 문화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 건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죄가 없다.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정신과 윤리 의식이 문제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술이, 누군가 에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는 기술이 된다.

과학 기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타하는 것은 올바른 정신 문화와 윤리 의식이다.

그리고 그 근간에 옛 선현들로부터 오랜 시간 검증되어 전해져 온 우리 유교 문화가 있다.

지난 해 10월 개관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K-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써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인의예지'의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우리 유교 문화는 켜켜이 먼지 쌓인 고서들 사이에서 잊혀져야 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옛것이 아니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다시금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고 우리가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DNA이자 정신문화의 뿌리다.

협력적 도정홍보의 조건

충남도에 바란다



이연우
초려문화재단 이사장

고 하겠다.

그 다음에 공보관, 대변인의 매월 1회 기획된 '기자간담회' 개최도 필요하다.

충남 15개 시·군 전체의 시정과 군정을 정리, 요약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운영은 또 어떻게?

그것은 충남 도백이 더 바라던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 발굴하여 변화하는 충남도정의 완벽한 홍보를 기대하는 바다.

대변인실의 소통, 메세지 전달, 뉴미디어팀 등 이들의 역할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도민의 의견수렴과 경청 그리고 도정 철학과 비전의 공유 등 주요한 도정의 과수꾼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기관, 실국 간 원보이스(One Voice) 체계 정립 역시, 전략적 도정메세지 전달의 핵심이다.

민선 8기 핵심 철학을 담은 제대로 된 메세지의 생산, 전달, 기록, 공유까지 새로운 전략적 제휴도 기대되는 바다.

세상에 창조라는 것이 어디 있나?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이다.

타 언론사, 선진국의 홍보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충남만의 '홍보의 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태흠 지사의 돌발영상 같은 것에 좀 더 세심한 메세지는 더 없을까 묻는다.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인력의 보충도 필요하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조직도 기대된다.

220만 도정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

다. 15개 시·군과의 연대와 제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더 폭넓게 전파, 전략적 공유가 충남도정 홍보의 핵심인 것을 말하고 싶다.

전임자들의 도정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시·군 곳곳의 소소한 민원보다는 어떻게든 치적을 내세웠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김태흠 충남도정이 그래서 뭔가 다를 것을 주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의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다.

힘센 충남의 모티브(Motive)는 단연, 도민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의 기회' 확대이어야 하며 군민의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 반영하는 일에 도정홍보의 목적을 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의견이나 민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엔 이유도 편견도 없다. 다만, 220만 도민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모두의 책무가 있을 뿐이다.

혹, 정무적인 판단도 요구되지만 삶은 소리까지 다 듣고 전달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그렇게 전향적인 홍보에 초점을 두고 홍보의 적절성과 목적을 둔다면 누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겠는가.

도정홍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홍보에 도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야 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거북이 장가 보내기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35)



소중애 동화작가

여름방학이었다. 애들 잘 가르쳤다고 도교육청에서 미국 연수를 시켜 주었다. 전액 무료는 아니고 상당 부분 자비 부담하는 일정이었지만 신이 났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대형 버스로 이동했는데 인원이 반도 안 차 넓고 쾌적하게 다녔다.

그랜드캐년에 갈 때였다. 날씨가 더워서 차창 밖 산과 들이 아지랑이 때문에 일렁거렸다. 인가를 지나갈 때 소 가죽을 널어 말리는 모습을 보고 농담을 했다.

"얼마나 더우면 소가 털가죽을 벗어 버리고 도망 갔을까요?"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달리던 중이라서 어른들이 내 농담을 좋아했다. 거기에 필을 받아 나는 계속 떠들어 어른들을 즐겁게 했다. 후버 댄서 버스가 잠깐 멈췄다.

"30분 휴식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경치 구경도 하세요. 10시 출발이니 시간 꼭 지키세요."

한국부터 함께 온 여자 가이드가 말했다.

나는 가시철망 너머 사막에 관심이 있었다. 거기에 덤핑 풀이 뒹굴고 있어 그것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

다.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 돌아보아 버스를 확인하고 다시 가시철망 너머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니 9시 50분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버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0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기다려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관광버스를 살펴보다가 한국인들이 탄 버스를 발견하였다. 그랜드캐년에 가는 버스였다. 가이드에게 태워 달라고 하니 난색을 표했다. 들여다보니 빈자리 없이 사람이 꽉 차 있었다.

'어쩐다' 하고 댐 아래 아지랑이 아롱거리는 길을 내려다보니 우리 버스가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에서 함께 온 여 가이드와 현지 남자 가이드는 버스에서 내려 뛰어 오고 있었다. 버스가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올라왔다. 버스에 타고 오라고 손짓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인원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남자 가이드가 소리를 질렀고

"다 탄 줄 알았지....."

여자 가이드가 울었다. 버스에 오르자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다.

"버스 안이 조용해서 소년생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하면서 웃었다.

버스가 약속시간 전에 떠났으니 나는 잘못이 없었지만 두 가이드를 화해 시키느라고 그날 저녁 맥주를 사왔다.

그때 보았던 사막과 덤핑 풀을 배경으로 쓴 것이 '거북이 장가 보내기'였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7월 3일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세이공청’의 자세로 (洗耳恭聽) 민이 충실한 의정활동하겠다”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등 성과 소개
행감 도민제보, 결산감사위원 증원 등
도민 참여 확대 통한 열린 의정 다짐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1년 동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정책·예산분석 지원 및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경주해 왔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민의를 반영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제12대 충남도의회는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다.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및 처리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46명, 128건) ▲5분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에서 인정받은 일 잘하는 의회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입법

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모임(38개) 운영 개선 ▲정책위원회 활성화 ▲의정토론회(23회 개최) 내실화에 힘썼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14명 등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다짐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감사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쉽지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우리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 되겠다” 충남도의회는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1년 동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정책·예산분석 지원 및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경주해 왔다.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공무원 3040 해외연수 운영 개선 요구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는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차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2년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74명(1인당 600만원 이상 지원)이 연수를 다녀왔고, 2023년은 6억원으로 104명이 선발되어 연수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2022년 사업을 보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선발 대상자도 6급 이하 30~40대지만 74명 중 5급선발, 20대 11명 선발중 6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이었으며 팀당 20대가 50%인 팀도 2팀이나 있고 연수 후 1~2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업목적대로 시행하려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운영 부서에서 사업시행과 평가까지 효율적 운영과 전년도 업무성과 대상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김민수 충남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치 대상은 대전에 지역본부를 둔 31개 공공기관이다.

김 의원은 “현재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대전과 충남을 한데 묶어 본부·지사를 두고 있다”며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된다. 그러나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충남도가 충청지역에서 가장 앞선다”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본부지사를 통합하고, 충청남·북도에 독립된 본부지사 설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또한 관철 시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김석곤 충남도의원(금산)은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촉구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로, 이 전투를 통해 왜군이 호남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진왜란 초기 당시 왜군(고바야카와)은 2만여 병력을 이끌고 ‘이치’와 ‘웅치’를 지나 호남 진출을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이 길목을 넘어려 했지만, 권을 장군에 의해 격퇴당했다”며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 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치대첩이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 있는 이곳을 보존하고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산군 진산면 ‘이치대첩지’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이치대첩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급여 자원 분담 법적근거 필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인적적 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군별 지급대상자와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33개 안건 처리

재정 운영 올바른 방향 제시
예산결산·윤리특위 위원 선임
오인환 예·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33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소멸 대책 ▲금산 이치대접지 ▲충남형 체육복지 ▲당진 소들섬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논산2)을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회기를 보냈다”며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남도의회가 6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33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을 보고 받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논의

지방의회법·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제시

충남도의회는 6월 27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지윤 의원, 이상근 의원(홍성1), 신영호 의원(서천2)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선문대 김재광 법경찰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거 선임연구위원,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추진단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전문기관 자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간담회
신규·연임 등 상담관 18명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월 30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및 연임 상담관 14명 등 전체 상담관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민원상담소의 ‘상담사’ 명칭을 ‘상담관’으로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에 18곳의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시·군별로 1개소씩 마련됐으며, 천안은 3곳, 아산은 2곳을 운영 중이다.

상담소는 당면직 상담관인 도의원과 위촉직 상담관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상담관들의 임기는 1년으로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관리 ▲방문 민원인 응대 ▲정책 건의·상담 신청접수 및 보고 ▲입법·정책개발 활동 지원 ▲각종 홍보물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공정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2023. 6. 27.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충남도의회는 6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의 5분발언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은 ‘충남형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조직인 ‘체육 복지 허브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서 체육활동은 복지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됐었다”면서 “그러나,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은 이제 국민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어느 지자체보다 체육 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며 “충남형 체육 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충남형 체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과 그러한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체육 복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민들의 체육 복지와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남형 체육 복지 허브센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타개책 ‘워케이션’ 확대 제안



윤기형 충남도의원(논산1)은 지역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해 충남에 체류하는 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방식을 일컫는다.

윤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전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워케이션을 처음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논산은 워케이션의 성공 조건인 대도시 접근성, 대둔산 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 탐정호 출렁다리, 강경포구와 근대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인 선사인 스튜디오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논산훈련소를 활용한 이색 관광상품도 준비되고 있다”며 “차별성을 통해 밀도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논산지역에 워케이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의 쉼터 소들섬 지켜야”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은 ‘한국전력의 소들섬 송전철탄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철새 서식지다. 특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법종보호종 등 다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1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최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송전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철탄이 많다”며 “경제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소들섬은 미래 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이자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들섬 일대에는 송전선로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철새가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죽어가는 희귀 철새들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런 한국전력을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2기 교섭단체 대표단 구성 이상근 대표 등 의원 6명 선임

충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12대 전반기 교섭단체 대표단 2기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소속 의원 36명이 모인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 2기 교섭단체 대표에 이상근 의원(홍성1)을 선출했으며, 29일 교섭단체 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단은 이상근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해, 수석부대표에 이철수 의원(당진1), 부대표에 박정식 의원(아산3)과 신한철(천안2) 의원, 총무 신영호 의원(서천2), 대변인에 박미옥 의원(비례)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상근 교섭단체 대표는 “제12대 전반기 1기 교섭단체 대표단이 운영을 잘해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2기 교섭단체 대표로서 원만한 원내 운영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Great Baekje Festival

대백제전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2023. 9. 23.(토) - 10. 9.(월)

개막식 공주 | 폐막식 부여

